해인동문장학회 6대 이사장에 일면 스님

9월 14일 제 30차 이사회서 연임결정

2021년 장학승35명 선발해 총 3000만 원 장학금 전달 신규이사 3명 선임도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면 스님은 해인동문장학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해인승가대학 스님과 졸업 스님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학승들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제6대 이사장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선임됐다. 일면 스님은 해인동문장학회 초대 이사장에 이어 5대 이사장을 맡아 장학사업을 이어왔다.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이사장 일면)는 9월 14일 오후 3시 법인 사무실에서 '2021년 제3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회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이사장 인사말, 장학회 보고안건, 심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만장일치로 선임된 이사장 일면 스님은 "코로나19로 사중과 모든 사람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후배 스님들을 위해 참석하신 임원 스님들 모두 대단히 고맙다"며 "제가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게 되었다. 장학회 임원 스님들 잘 모시고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해인동문장학회는 2005년 9월 출범 이후 해인사승가대학 재학승과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타 대학 재학승을 대상으로 장학승을 선발해 2020년까지 5억 5800만 원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해 오고 있다.

장학회 출범부터 애정을 쏟은 일면 스님은 "출가자 감소 등 승단이 처한 상황은 결국 선배 스님들이 후학들을 잘 이끌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십시일반 후학들을 위해 후원금을 내주신 스님들을 비롯해, 학업에 열중해 준 스님들 모두 감사하다. 더욱 열심히 해인동문 장학과 불교발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장학승 선발의 건도 상정돼 총 35명(해인사승가대학 재학승 10명,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후 타 대학 재학승 25명)에게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해인동문장학회는 장학금 수혜자에게 선발 결과를 안내하고 오는 11월 열릴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선임의 건에서는 9월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 가운데 5명이 연임(이사 4명, 감사 1명), 3명이 새로 취임(이사 3명) 의결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팔공산 제2석굴암 '인재불사' 나서



연등장학재단은 9월 12일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제16회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불교 미래를 밝히는 인재불사가 팔공산 제2석굴암에서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9월 12일 경북 군위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제16회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설립 17년을 맞이한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고등학생 20명에게 각 50만 원, 대학생 5명에게 각 100만 원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자리이타 정신으로 하늘을 떠받칠 기둥과 대들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열심히 소양을 닦고 미래사회 동량이 돼 인생을 자신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마음은 그리는 대로 이루워진다. 학생들은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려,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김성규 재단법인 통섭불교원장은 "장학금 수여는 부처님 동체대비사상을 실현하는 방편"이라며 "법등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전달식에서는 노동일 前 경북대 총장의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송광사, 위기가정에 추석선물 전달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는 추석을 앞두고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박정숙)와 함께 9월 16일 순천시 관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송편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은 총 71세대 81명 아동에게 전달됐다. 또 아동 3명에게는 후원금 잔액이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대승사 주지 보리 스님, 박정숙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자공 스님은 "차별없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둥근 달의 마음처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정숙 센터장은 "후원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남동부지역 내 부모 학대와 방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위탁가정아동지원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성 스님, 전북교구원장 재선출

9월10일 지방종회서 만장일치로 추대해

'나눔과 복지사업' 지속 천명 신도조직 · 봉사단결성 역점 전북 영산재 세계화도 추진



제19대 전북종무원장으로 추대된 진성 스님(사진 오른쪽)이 임명장을 받고 있다.

태고종 전북교구원 제19대 원장에 현 종무원장 진성 스님이 선출됐다. 태고종 전북교구 지방종회(의장 법전, 김제 용봉사 주지)는 9월 10일 제71차 지방종회를 열고 제19대 전북교구종무원장에 진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재임한 진성 스님은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 보존회의 활발한 활동 지원과 범패 · 작법의 개인 무형문화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화장엄의 무형문화재 지정도 함께 추진해왔다. 이날 전북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라북도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동고사)는 제18대 전북종무원장 재임 중 진성 스님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공로패도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19대 종무원장에 다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 19대 임기 중에는 18대에서 추진했던 나눔과 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겠다"며 "특히 19대 임기 중에는 각 사찰의 조직 구성을 완료해 단위사찰 봉사단을 구성, 나눔과 복지사업에 적극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또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베트남 닥락성에서의 영산재 시연을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며, 전통사찰 보존사업에도 적극나서겠다"며 "종무원 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 18대 종무원장 재임시 미진했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제19대 전북교구 교역직 임직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교역직 종무원에 부원장 연수 스님(완주 봉서사), 총무국장 현진 스님(전주 천지사), 교무국장 법성 스님(익산 태봉사), 재무국장 지오 스님(익산 대인사), 문화국장 법진 스님(익산 태봉사), 사회국장 영전 스님(김제 관음선원) 등이 임명됐다. 또한 결원상태였던 직능직 종회의원에 김제 성덕사 도홍 스님이 선출됐다.

한편, 전북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영산, 익산 태봉사)는 8월 20일 전북교구 종도에게 제19대 종무원장 선출을 공고했다. 이후 진성 스님이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국사, 월산 대종사 추모다례재 봉행



불국사는 9월 11일 무설전에서 월산 대종사 24주기 추모다례제를 개최했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9월 11일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다진 성림당 월산 대종사 제24주기 추모다례재를 무설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주지 종우 스님, 불국사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원로의원 지명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불교신문사장 현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로의원 지명 스님은 "보시와 자비로를 행하여 중생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 불도를 이루는 길이다"고 월산대종사 어록 내용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문도대표로 "엄중한 시기에 다례재에 참석한 고마움에 더욱 수행 정진하여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추모사에서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연보를 기초로 하여 월산 대종사의 삶을 총정리 했으나,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학술세미나에서 월산 대종사의 선을 중도선이라 밝히고 중도선을 대중에 공포한 것은 무엇보다 큰보람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다례재는 불국사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축원에 이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종사 영반, 추모사로 이어졌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의 죽비삼배 후 월산 대종사 생전 법문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뚱이, 이 청정한 이 몸뚱이는 무엇인가' 라는 화두가 대중에게 전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022년 파승 및 2021년 예비

남·여 군승 장교 요원 모집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남·여 예비 군승 장교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 사미 / 사미니계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스님
-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년도 연령이 만 35세(기준: 만 35세 되는 해 1.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원서 접수기간 / 접수처 : 2021. 10. 31(일) 한 / 군종교구 종무실
- 보내실 곳 : (0438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교구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교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02-797-7266 / 군종교구 종무실

불기2565(2021)년 9월

국방부 군종특별교구